

가인의 배반 인생

창세기 4장 1-7절

김구원(개신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

아담과 하와의 영광, 가인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은 적어도 부모님의 큰 기대와 축복 가운데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קָנִיתִי אִישׁ אֶת־יְהוָה

나는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낳았습니다 (창 4:1).

“여호와와 함께”라는 구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와는 가인의 출생에 여호와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스런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출생에 대한 기쁨과 그의 인생에 대한 기대는 “가인”이라는 이름에 잘 드러납니다.

6 포룸 비블리쿰

“가인”은 “쟁이” 즉 “전문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공학박사, 과학자 정도의 의미일 것입니다. 문명의 첨단에 서서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4:16-24에 기록된 가인의 족보를 보더라도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 문명의 시조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성”(civitas) 즉 도시 문명을 이루었고,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동철 제조업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그 이름처럼, 또한 부모의 기대처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땅을 가꾸는 농부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농사”는 3D 업종의 하나지만, 고대 사회에서 농업은 오늘날의 컴퓨터 산업과 같이 사회의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업무도 농업을 위한 사회적 기반 시설(예를 들어, 관개 수로)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은 비가 부족한 기후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농작을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공동체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언제 강이 범람하는지를 계산해야 했고, 어떤 종자가 잘 자라는지를 알아야 했고, 노동력을 적시에 동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농업 산업은 언제나 도시 주변에 형성되었고 도시 문명의 일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인은 도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시골에서 올라와 성공한 전문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가인이 “성공”하기까지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고 본인도 야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건설해 갔을 것입니다. 가인이 하겠다면 아담과 하와도 기꺼이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지해 주었을 것임

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 가인이 성공해 주기를 마음속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가인도 그 기대를 잘 알고 노력했겠지요.

반면 아벨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벨의 출생은 2절 전반부에 다음과 같이 간단히 언급됩니다.

וַיִּהְיֶה לְגַדְתָּא אֶת־אָחִיו אֶת־הָבֶ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먼저 가인의 경우와 달리, 아벨의 출생에 대한 부모의 소회가 본문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가인의 출생 때 느낄 수 있었던 흥분은 아벨의 출생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본문도 아벨을 “가인의 아우”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즉, 하와는 “가인의 아우”를 낳았을 뿐입니다. 아벨의 출생에 부모의 소회가 소개되지 않은 점과, 아벨이 가인의 아우로 소개된 것은 부모의 기대와 소망의 대상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어로 “덧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이 “전문인”이라는 의미였던 것에 반해, 부모가 가인의 아우에게 준 이름은 “덧없다”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아벨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농사와 달리 양치는 일은 그다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을 받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목민들 중 성공한 사람이 정착하여 농업 생활을 시작한 예들을 보면 유목은 농업보다 전근대적인 산업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 중 하나가 뛰

어나면 하나는 본의 아닌 희생을 강요당하듯이 아벨도 형의 성공을 기원하며 자신은 양을 치며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 이 둘은 극적인 반전을 경험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랑이자 언약의 아들인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아들”에서 순식간에 “살인자”로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부모님의 축복 속에 태어나고 자라서 인생의 성공을 거둔 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4-5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וַיִּשַׁע יְהוָה אֶל-הָאֱלֹהִים וְאֶל-מִנְחָתוֹ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주목하셨으나

וְאֶל-קַיִן וְאֶל-מִנְחָתוֹ לֹא שָׁעָ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주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삶은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성공에 대한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가인은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였던 그는 세련된 도시 생활을 영위하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심히 분주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분주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좇는 삶이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야망이며, 자신의 직업적 성공이지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 드러지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4-5절이 암시하는 바처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날마다의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이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날마다의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야기되듯이 아벨의 제물에 피가 드러졌고,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제사드리는 주체에 있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의 두가지 사실에 의해 증명됩니다.

첫째, 3절 앞부분의 “세월이 흘러”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וַיִּהְיֶה**인데, 이것은 “날들의 마지막에”라고 직역됩니다. 물론 그 히브리어 표현은 “세월이 흘러”에 대한 숙어적 표현이지만, 문자적 의미가 본문 해석에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그 결정적 제사가 “날

들의 마지막”에 드러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선고가 단회적인 제사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한 번 제사를 잘못드려 가인이 태함받지 못한 자의 시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가인의 인생 전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공한 자식,’ ‘자랑스러운 자식,’ ‘가문의 영광’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예배 생활, 그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둘째, 가인이 사건을 만났을 때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의 평소 삶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인은 자기 방어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은 것은 가인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습니다. 옳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미워하여 살해합니다. 그가 참된 신앙 인격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제사가 열납되지 않았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피는 자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낸 것은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앙의 반응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자신의 뜻과 의지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모릅니다”라고 거짓말할 뿐 아니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인의 배반 인생

가인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반의 인생입니다. 가인은 본래 하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잉태해 낳은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낼 아들이 될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 속에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실한 노력으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아 성취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위대한 쟁이”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성취에 대한 욕구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은 쫓기고, 불안하고, 분내고, 생존에 급급한 그런 삶이었다.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저버린 가인의 삶은 “배반의 삶”인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가인과 같이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에게조차도 은혜의 방편들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평생토록 언약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온 가인에게 일종의 충격요법을 통해 교훈하시기를 원하셨을지 모릅니다. 또한 제사 때문에 매우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6절의 “왜 네가 화를 내며, 왜 네 얼굴을 떨어뜨렸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가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말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타오를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을 상실함

니다. 나의 분노를 풀 대상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우 분노가 치미는 사건을 만났을 때,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돌아보면 화가 누그러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욕망은 네게 있으나(즉, 죄는 너를 정복하고 너의 주인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해 주십니다.

이것은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죄인의 멸망을 아픈 가슴으로 바라보십니다. 가인에게 주신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지목하여 ‘네가 나를 팔자니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즉,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살인자 가인이 사형 대신, 열매 없이 떠도는 형벌을 받았을 때, 너무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이 살 수 있는 방편까지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라도 세상에서 살 방편들을 허락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의 창시자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자신과 신학을 달리하는 형제들이나 타종교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며 무례합니다. 그들의 멸망을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한국 교회가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려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부터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